

# “200편 꼬박 보고 고른 53편... 그 울림 나누고 싶어”

# 스무살, 다시 여자라는 이름으로

제주 문화계 이 사람 (32) 윤홍경숙 제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한해 빼고 줄곧 영화제 지켜 기획단·프로그램머 등 활동 제주 여성 감독 양성·발굴 안정적 상영관 확보 등 바람 “지역여성영화제 교류 강화”

에서 첫발을 댄 영화제는 해를 거르지 않고 이어져왔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탄생 이듬해에 지방에서 생겨난 여성 영화제다. 초창기엔 7월 여성주간에 맞춰 영화제를 진행했고 2011년부터는 9월에 주로 치러지고 있다. 첫째 7편이던 상영작은 20회인 올해 53편까지 늘었다. 한해 유료 관객이 총 2000명에 달할 만큼 양적으로 성장했다.

기획단, 프로그램머를 거쳐 3년 전부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홍경숙 위원장은 영화제가 가까워지면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과 많게는 200편의 영화를 일일이 찾아 보고 그해 여성운동의 핵심을 담은 작품을 중심으로 4분의 1 정도를 추려낸다. 그래서일까. 지난 16일 제주여성영화제 프로그램을 알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이번엔 놓치면 아까운 상영작을 공들여 소개했다. 여성들이 만든 영화를 통해 “익숙하면서도 불편하고, 낯설지만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에게 말을 걸고, 사유하며, 연대하고, 해방되는 짜릿한 공감을 경험한다”는 그는 더 많은 관객들과 그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했다.



스무살이 된 제주여성영화제에 줄곧 몸담아온 윤홍경숙 제20회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영화제 포스터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9월 24일 막이 올라 6일 동안 일정을 펼치는 여성영화제는 어느새 성년을 맞이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그동안 아홉 번이나 영화제 장소를 옮겨 왔던 터라 안정적인 상영관 확보가 시급하다.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상급 인력을 두고 영화제 사무국을 상시 운영하는 일 역시 오래된 바람이다. 여성영화제가 앞으로 색션을 확장하려는 단편경쟁 ‘요망진 당선작’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 감독을 양성하고 발굴하

는 일도 장기적인 과제다. 윤홍경숙 집행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 부산, 인천 등에서 개최되는 여성영화제 활동가들이 참여한 ‘지역여성영화제 네트워크’와 교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느슨한 연대 모임이지만 여성영화 배급, 영화제 전문 기획, 역량 강화 등 공동 프로그램 구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영화제 이달 24-29일 메가박스제주 20년 특별전 등 5개 섹션 구성

제주여성영화제엔 중심부에서 밀려난 채 외로이 싸워온 사람과 이수가 있었다. 여성노동자, 성소수자, 이주 여성, 장애, 평화, 생태 등이다. 어쩌면 영화제에 달린 제주, 여성이라는 이름부터 ‘변방’일지 모른다. 영화제를 꾸려온 이들은 그것들을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영화를 찾아내 관객들에게 지쳐 쓰러지지 말라고, 힘내 다시 나아가자고 다독여왔다.



영화제 기간 관객과 만나는 제주 출신 부지영 감독의 ‘여보세요’.

그 영화제가 어느덧 스무살이 되었다. 제주여민회(공동대표 이경선, 이양신)와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윤홍경숙)는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옛세동안 제주시 중앙로 메가박스제주점에서 ‘변방없이 변화하다’란 주제 아래 20회 제주여성영화제를 열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성년으로 새출발하는 자리를 갖는다. 상영작은 53편에 이른다. 현재진행형인 ‘미투’ 운동이 떠오르는 이탈리아 영화 ‘여자라는 이름으로’를 개막작으로 정했고 테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사연을 그려낸 ‘뽀뽀야만다’를 폐막작으로 골랐다. 이들을 포함 영화제는 ‘올해의 특별시선’ 등 4개 섹션과 특별전으로 꾸며진다. ‘올해의 특별시선’은 ‘기억의 전쟁’, ‘얼굴, 그 맞은편’ 등 차별, 혐오 처럼 여성을 둘러싼 논쟁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로 채운다. ‘여풍당당 그녀들’엔 ‘별새’, ‘야네스’가 말하는 바르

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등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다. ‘더 서치’, ‘로지’ 등을 볼 수 있는 ‘그래도 삶은 지속된다’, 국내 여성감독들의 단편경쟁공모 본선 진출작을 상영하는 ‘요망진 당선작’도 제주여성영화제의 ‘브랜드’를 만드는 색션이다. 감독과의 대화, 스페셜 토크도 잇따른다. 특히 제주가 고향인 부지영 감독은 영화제 20년 앙코르 상영작 ‘지금 이대로그 좋아요’, 체제를 넘은 두 중년 여인의 연대를 보여주는 ‘여보세요’로 관객과 만난다. 이달 23-29일에는 상영관 인근 ‘포지션 민 제주’에서 제주 여성운동사와 맥이 닿아있는 2000년 이후 영화제 20년 변천사를 여러 자료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념전이 열린다. 행사 말미인 27일에는 영화제 20년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집담회가 마련된다.

개막식은 첫날 오후 7시 메가박스 제주 1관, 폐막작을 제외한 모든 작품은 유료로 상영된다.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가 운영하는 ‘돌페미 무비팩’을 이용하면 영화 관람 후 무비클립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주여성영화제 공식블로그(<http://jejuwomen.tistory.com>) 등 참고문의 064)756-7261. 진선희기자

## ‘박물관 천국’ 학예 역량 키워 이름값 하자

국립박물관·도·박물관협의회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워크숍

박물관협의회(회장 전선권)와 공동으로 이달 17-18일 국립제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펼쳐지는 ‘제주도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박물관·미술관이 들어선 지역인 만큼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는 인식

에 따라 기획됐다. 도내 박물관·미술관 관계자와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학예 인력과 예비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에는 전시 기획과 연출, 소장품 관리 분야를 주제로 이론 강의와 실습이 잇따른다. 제주 문화 콘텐츠에 기반한 전시 기획을 다룬 국립중앙박물관 이애령 과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전시 연출과 디자인, 박물관 보존 환경, 문화재 포장 실습, 소장품 등록 절차와 관리 운용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 제주도박물관협의회는 이 행사를 계기로 지역 문화기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 사업 발굴, 학예 인력 대상 교육, 박물관 미술관 투어상품 개발 등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064)720-8104. 진선희기자

## 문화가 쏙지

지역문화진흥계획 토론회

법정 계획인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제주 토론회가 이달 1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문화도시·문화적 도시재생, 생활문화 기반 구축, 문화인력·문화생태계 등 분야별 지정토론회는 물론 문화 예술인 등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4)800-9111.

월봉목연회 해녀 병풍전

월봉목연회(회장 변재진)가 주최하는 해녀문화 병풍전이 16-18일 해녀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회원들은 ‘뽀뽀로 노래하는 잠수여가(潛水女歌) 39운(韻)과 잠수여답가(潛水女答歌) 39운 병풍전’이란 이름 아래 10폭 병풍 8벌을 제작했고 한글로 쓴 잠수의 노래, 잠수가 화답한 노래도 병풍 2벌로 만들었다. 문의 064)755-8785.

해녀문화 바로알기 탐방

제주마을문화원(이사장 안정업)은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인 ‘해녀문화 바로알기’ 해녀문화탐방에 참여할 다문화단체나 전국 학부모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으로 해녀문화 전문가의 현장 해설, 버스투어,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이메일(lovejeju2019@naver.com)을 이용해 별도 양식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4)760-4685.

동홍아트데이 육아 북토크

‘열두 살 동화작가’ 전이수군의 어머니 김나운 작가 초청 ‘육아공간, 함께 얘기해요’ 북토크가 이달 18일 오후 7시 동홍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 3월 ‘내가 너라도 그랬을거야’를 출간한 김 작가는 이날 책 속에 담긴 ‘아이들의 마음 읽어주기’와 엄마, 아빠 관객들과 육아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64)760-4685.



개막작 ‘여자라는 이름으로’. 미투 운동이 연상되는 이탈리아 영화다.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회장 강철만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자동시스템(조색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통기성 (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 (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특징: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용도: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타일면, 벽돌면, 스톤면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성지묘양원

타일면: 이도아구정빌딩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워터스틸라 12차, 미건빌라

자외선에 샐(부식)아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 100% 스텐연통 설치
-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초천면 대흘리 가정집 설치

- 초기점화 30초내
-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물 : 녹/외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성질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줄눈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도민방문주의바랍니다.